

발행처	인간	인간	인간	인간	인간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발행일
발행시간	발행시간	발행시간	발행시간	발행시간	발행시간
발행인	발행인	발행인	발행인	발행인	발행인
발행처	발행처	발행처	발행처	발행처	발행처

제 1092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9,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3월4일 (수요일)

[1]

학교당국 재단 재정확보에 공동노력해야

재단전입금 확충방안등 선행과제 오는 5일 '등투승리 전진대회' 열기로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학교당국과 학생들간의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3시30분부터 기획조정실에서는 5차협상이 열렸다.

이날 협상에서는 학교당국의 인사이동에 따른 실무협상팀이 약간 조정된 가운데 지난 4차협상에서의 선형요구인인 △예결산자료 공개 △제일별 차등화가 아닌 학년기준 원칙 적용 △재단전입금의 확대등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으나 진

행했다. 학생측 등록금 부정 소위원회(위원장=이광집·진기4)는 92학년도 등투의 목표로 △첫째 재단혁신을 통한 전입금 확보의 토대 구축을 마련 △둘째 '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책협)의 구성을 통한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의 제도적 강화를 학교당국에 제시했다.

학생회측이 제시한 등책협의 구성단위를 보면 학교당국 2인, 재단대표 1인, 교수대표 2

인, 직원노조 2인,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등록금 책정이 공동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실무협상대표 조희영(경영학)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당국에서 등록금부문에 대한 학생측과의 협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에서의 등책협구성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5차협상에서 학생측 등투소위가 새롭게 제기한 요구안은 △한학기 휴학제의 실질적인 보장 △신규교수채용에 있어서의 학생의사 존중 △시국관련 미등록 재학생의 복학 허용의 제도적 틀 마련 등이다.

이에 학교당국은 "학사행정 부분은 등록금 협상성격이 아니지만 이후 협상에서는 교무처장의 배색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측은 등록금 협상에 대한 학교당국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더이상 간과하지 않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오는 5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등투협상보고회'를 기점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학기 1차 등록기간이 끝난 지난달 28일까지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 및 복학생, 장학금수여자 등 총합계인원 1만5천6백50명 중 1만1천1백1명이 등록을 마쳐 70.9%의 등록률을 보였다.

지난달 28일까지의 1차등록 마감후 학교당국은 오는 10일까지 추가등록 기간으로 설정, 지난 29일을 전후해 재학생으로 추가등록기간내에 등록을 조속히 마쳐 달라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3일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는 10일까지 등록연기를 지속적으로 선전해나가는 동시에 임시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및 각단체, 과단위의 비상총회를 통한 학생들의 단원복지인수령, 등투전진대회 강연회 등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2일 만해관장에서 입학식을 마치고 나서는 총장·이사장 행렬에 재단전입금 확대와 교육재정확보를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동국관 증축공간 활용에 이전 학생 열람실 확장-자치기구 공간 요구

동국관(L관) 증축 준공식이 오는 22일로 확정된 가운데 증축공간사용방안 문제를 놓고 관리처와 동국관지역 4개 단과대 학생회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동국관지역 법과대, 사과대, 경상대, 야간강과 등 4개 단과대 학생회장은 지난달 27일 야간강과총학생회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현재 증축되는 1백60평을 교수연구실 및 행정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려는 관리처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번 증축공간에 상용하는 방안을 관리처에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학생회측의 요구안은 △동국관 M503과 M502를 야간강과열람실과 합쳐 총6백석의 도서관 열람실로 확장해 줄것 △동국관 M503안 열람실로 만들 경우 동국관 지하 6개 교수연구실을 학생자치기구 공간으로 제공해 줄것 등이다.

이와같은 학생회측의 요구안에 관리처는 "2개의 강의실을 열람실로 교체할 경우, 강의실 부족에 따른 수업장애가 발생하며 예술대의 경우 동국관 지하에 2개의 자치기구 공간을 할애해야 할 상황"이라며 동국

관 M503안을 열람실로 만들어 줄 것을 시사해 이후 학교·학생회간의 합의내용이 주목된다.

박물관 도록 발간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김길용·고교미술사학)은 지난 2월10일 조상들의 유물을 통해 그 당시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박물관도록을 발간했다.

이도록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조각, 불화 등 1백35점의 유물을 수록했다.

해설

학생측의 '등록금 책정 협의회' 구성을 통한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난 2일 5차협상에서 새롭게 제기된 가운데 아직까지 학교당국과의 등록금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4차협상까지 학교당국은 학생측의 등록금부정소위원회가 요구한 재단의 의지를 담보하기 위한 재단실무 관계자의 협상태세를 배색이 수행되지 않은채 재단전입금의 확충방안에 대한 학교당국의 명백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91학년도 등록금 협상에서 합의한 예결산자료의 공개, 인상기준은 계열별 차등이 아닌 학년기준 적용, 등록금의 존속의 축소방안 구체화 등 주요내용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등록금협상은 요구안의 수용이 합의되지 않는 공방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당국측은 등록금협상이 3월 학사일정이 진행되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의도지만 학생측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후 협상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 중론이다. 더욱이 학생측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단전입금 확보를 위해 학교당국과 재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제안하고 있어 이에 학교당국의 성의있는 태도가 없을때 대대적인 재단혁신의 명분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오는 5일로 '등투 협상보고회'와 등투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1학기 첫학내전의로 설정, 이를 계기로 학내 각주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대증과의 결집점을 찾을것으로 보인다.

(취재부)

고시 장학생 60명 선발 공인회계사반은 28명

서울캠퍼스 고시지도위원회(위원장=손해복·법학)는 92학년도 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고사 합격자 총60명의 명단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에 치러진 장학생선발고사에서는 총1백50여명이 응시했는데 이 가운데 수험료 전액면제 30명, 반액면제 30명 등 총60명을 고시장학생으로 선발했다.

한편 공인회계사반지도위원회는 이번 1학기 장학생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인회계사반의 수험료 전액면제 장학생은 신용교(야간회계4) 군동 13명, 반액면제는 김연성(야간회계4) 군동 15명으로 이 가운데는 선발장학생인

학과수석으로 송효영(야간회계2), 임성기(야간경영4) 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은 오는 5일 오후 3시 동국관(M207)에서 갖는다.

맹동욱 교수 초빙

본교 연극영화학과에 1년기 한으로 교수인 셰프킨대 계소 한국인 맹동욱교수가 외국인 교수로 초빙돼 연극실기, 연극 기초 강의를 맡는다.

한편 맹교수는 지난해 3월29일 장학기 예술대학장의 초청으로 본교를 방문해 셰프킨대 학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진바 있다.

제34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 ○ 명
 ②응시자격: 1학년 남녀재학생
 ③모집분야: 일반 및 문화·사건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 서울 3월26일(목) 오후4시까지
 경주 3월19일(목) 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3월26일(목) 오후5시
 경주 3월19일(목) 오후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동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동대신문사 —

1992년의 신입생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동양의 전방에서 다스곳이 날개를 접는다. 내일의 비상을 위해서 말이다. 꽃 소식이 대지를 장식하듯 우리 학교는 신입생들의 푸른기상이 있어 하늘을 날듯만 같다.

현대는 기억력의 시대다. 혹은 이해력의 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정책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란 본시 단순한 물질이 아니요 또 단순한 어떤 역할을 위한 꼭두각시만으로도 될 수 없다. 한갓된 노동력이나 기능으로써 인간이 환원될 수 없다는 데에 현대에 사는 인간의 근원적인 소의감과 불안이 있다.

그것은 기억력, 이해력을 중심으로 볼때 그렇지만 창의

보수

력을 인간의 뿌리에 대지처럼 깔고 설때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것

신입생을 맞으며

은 인간이 잘나고 못나고 가림없이, 불구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불민하다해서 천대함이 없이, 그 전인격에 있어서 포용하고 인정하고 화해케 하는 것이 인간이 창의적으로 창출해낸 자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자비의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형태가 다름아닌 창조적 인간성이다.

그러면 자비상이라는 현대와 더불어 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밝혀지고 다시 살려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간성을

거 자신의 행위에 따라 현재 자신의 위치가 신장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미래에 있을 자기의 위상이 먼저 정해진다. 이는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었으나 미래만은 확실히 자기것으로 자기가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 삼생이과의 법칙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정진을 빈다. 학교의 오랜 역사나 시설이 자랑될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그 학교에서 배출되느냐가 앞날의 경쟁이 될 것이다.

金知見

우리들은 오늘이 어제의 영광임을 알고 있는 까닭에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나는 새처럼...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나는 새처럼...

높게 날아 멀리만 보려했던 지난날에서
 이전 낮게 날면서 자세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너그러움의 날개짓을 할 때입니다.

동대신문사

사설

문제 남긴 교수 채용

신규교수채용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무역학과, 경제학과 교수 임용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 연기됐고 몇몇 교수의 이해관계에 기인한 파행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단이사회의에서는 1학기 신규임용에 서울·경주 25개과중 19개과만을 뽑고 6개과는 다음학기로 미뤄졌다. 이번 신규교수채용에서 주목됐던 것은 6학기동안 교원승진이 연기됐던 무역학과와 적극적인 학생참여가 이루어졌던 경제학과가 신규채용에서 제외됐고 보류결정을 둘러싼 배후에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역학과와 경제학과는 지난 1월6일의 공개행의를 시작으로 서류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1순위를 올렸으나 총장면담시 수계장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미결제형태로 회부됐고 경제학과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연기됐으며 교수임용이 4학기를 넘겼다.

올해 역시 교수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학생, 학교당국이 좋은교수를 영입하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채용절차상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는 천차만별로 의견을 달리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88년 이후 신규교수채용에서 학교당국과 합의했던 내용이 유명무실해 가면서 파장은 계속 될 것이다.

교수채용이 옹호자의 학력, 경력 및 해당학과의 의견등에 바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채용절차상의 모든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현재 무역학과나 경제학과와 보류결정을 놓고 일부에서는 '교수간 갈등에서 기인했다' '모종의 압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일정근거를 가진 것이라면 총장은 그동안의 경과와 보류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채용과정이 명확한 체계를 가져야 한다. 해당학과에서 1차심사로 순위가 결정되면 학교당국에서 면접, 심사하여 결정하는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사립대에서는 제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는 교수채용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게 현실이다. 까닭에 채용분야결정에서부터 서류심사 공개강의까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교과과정위원회가 준비해야 한다.

셋째, 학교당국은 교수, 학생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1순위자로 추천된 옹호자를 명명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무역, 경제학과 인용보류는 교수, 학생이 합의한 실례를 남기지 않으려한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치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채용에 추호의 의혹도 사지 않도록 공채의 기준-새부진공 연구경력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수채용문제는 다음세대의 인재를 길러낸다는 교육본연의 입장에서 분단된 4학기, 심지어 6학기이상 파행을 거듭해온 이제까지의 과정은 시급히 정리되고 필요한 분야에 교수, 학생이 합의하는 공인된 임용되는 제 당연한 귀결일것이다. 공명하게 학연, 지연, 혈연등 갖가지 이해관계에 의해 교수와 제단, 또는 교수 서로간에 심각한 압력과 불화를 초래한다면 이같은 폐단은 그렇잖아도 문제부정적인 대학교육을 더욱 도탄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교수나 제단은 확인해야 할것이다. 학생들도 교육의 일원한 주체라는 걸 깨닫고 교수채용과정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그과정에서 교수와 함께 파행의 진지한 고민이 모색돼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교수채용이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파행을 겪는다면 무역, 경제학과와 같은 경우는 비밀비해 할것이라는 것을 제단과 학교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명무실한 후생복지위원회 재건하자 복지매장건설은 모든 동국인의 희망사항

학원을 올바른 상아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환경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학교당국, 교수, 직원, 학생대표자들로 구성된 후생복지위원회(이하 후복위)는 학내 복지사업을 결정하는 최고 단위이다.

학내 제반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예산편성 및 복지관련매장 관리를 위해 제 7대 후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후복위는 주체의 참여 보장, 대화와 협의에 의한 복지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제는 지난해 학생식당 직영의 성과로 대변된다. 또한 그동안의 불신과 부정으로만 일관된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상당부분 신뢰가 조성됐다.

그러나 제반 주체들이 자기위상을 갖지 못했으며, 회의의 단점을 보여 왔다. 이는 학교당국의 부정적 의도와 결정사항에 따른 실선 부족, 주체들의 준비미흡 등이 누적된 결과라 하겠다.

후복위는 학내 제반 복지문제의

조사 과정 속에서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해 이를 심의, 의결, 집행함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단전임금확충과 등록금 투쟁에서 독자적인 복지예산 편성과 복지기금 확보가 요구된다.

한편 현재 외부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학내 복지매장들을 모두 후복위에서 직영한다면 어느정도 복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지매장건설은 후복위의 활동토대 뿐만 아니라 전동국인이 즐겁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다.

벌써 몇년째 미뤄지고 있는 복지매장건설. 이를 위해 후복위에서는 실무경험이 부족하므로 학교당국의 후생복지계와 학생들의 학복위로 구성된 사무국(집행국)을 신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후복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학원자주의의 측면에서 볼때 복지매장에 대한 후복위 주체들의 자성과 열린 논의는 생활협동조합건설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권혁선(농과대 입학과)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겨 있는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의는 260-3491-2로.

통일의 첫째조건은 국보법 철폐

정원식 총리와 연행형 정무원 총리는 지난 2월19일 평양인민보와 공언에서 역사적인 남북합의서 발표를 통지문을 교환했다.

47년에 걸친 적대적 관계의 부분적 완화라는 점과 앞으로의 민족통일을 향한 시급성이 된 것이라는데 점에서 남북의 모든 국민은 기대와 환희에 휩싸였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민족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생각된다.

현재 남북합의서의 교환으로 화해와 교류의 무드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률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는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난 47년간 통일을 위해 목숨을 내건 우리들의 부사를 치다친 감으로 먼저 버린 '국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현행법은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안법은 북한을 절대적 반국가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역사속에서 국보안법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안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닌 정권의 안정적 장수와 유지에 활용되어 왔다.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성격을 폭로하고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위해 싸운 우리의 투사들을 국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추방해 제쳤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라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 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채진수(경상대 무역학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관 페트리 리안 (제1세대 입학과)

9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던 지난 2일 만해광장 한 모퉁이엔 드문드문 서있는 스님들 사이로 유년히 키가 큰 서양인이 눈에 띄었다.

유관 페트리. 올해 인도철학과에 입학한 스위스 취리히 출신의 24세인 조금은 늙은 신입생이다.

페트리군은 몇년전 그가 본국에 있을때 알게된 지금의 한국인 보호자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동양의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또, 인도철학과를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불교와 선 사상을 모두 배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그가 전공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다소 생소한 범어(梵語)문학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피력. (조승우 기자)

알림: 춘천 인터뷰형식으로 게재됐던 '만나고 싶었습니다'가 이번호부터 요점만을 간략히 서술하는 단문형식으로 바뀐다.

9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던 지난 2일 만해광장 한 모퉁이엔 드문드문 서있는 스님들 사이로 유년히 키가 큰 서양인이 눈에 띄었다. 유관 페트리. 올해 인도철학과에 입학한 스위스 취리히 출신의 24세인 조금은 늙은 신입생이다. 페트리군은 몇년전 그가 본국에 있을때 알게된 지금의 한국인 보호자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동양의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또, 인도철학과를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불교와 선 사상을 모두 배울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그가 전공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다소 생소한 범어(梵語)문학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피력. (조승우 기자)

대학문화 반영하는 대자보 지정 게시판에 붙였으면

세월이 시적되면서 교정은 화사한 일출물, 한층 성숙해진 모습의 일출물로 가득차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일출물은 또 하나의 정교는 바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각종 동아리와 동창회의 구인(?) 광고들이다.

가끔은 기발한 문언이나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눈에 띄어 보는 이를 유쾌하게 해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를 지저분하게 할 뿐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듯하다.

이런 부작용때문에 작년부터 자보를 붙일때는 꼭 지정된 곳에 붙이도록 게시판까지 마련했으나 지금은 전 교정이 모두 게시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게시판 사용의 경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게시판을 독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커다란 자보의 사용은 절제되어야 하겠다.

물론 저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욕은 말할 바 아니다. 이런 방법들이 타당하다면 이기주의와 타락해져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학사회에서 대자보가 차지하는 역할과 그 교육의 문화를 매우 사려 깊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나 사를 올바른 대자보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빈틈없는 제의와 충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소중함 마음이 만들어내는 대자보, 우리 모두 애정하고 지켜주세요.

손정미 (인문대 국문과)

도서관 분실사고 대책 마련 시급

중앙도서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도서관내 물품분실사건 또한 많이 일어난다. 누가 소용돌이 세트를 잃어버렸는지... 특히 며칠전 발생한 법대학생의 12만원에 달하는 책 분실사고는 매일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으로서 '내책 또한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분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측은 입구에 '학생증 제시'라는 표찰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다.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더욱 빈번한 분실사고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지난 2월 27일 인문복지위원회와 식당측이 식비인상에 최종합의를 했는데, 이전에 충분히 홍보와 입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보자.

식당측은 물가인상, 인건비상향 등을 주요인사로 들며, 식단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전의 경험으로 보아 믿지 않거나 이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스러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생회와 학생과가 인들이 단결하여 보다 나은 양과 질의 음식을 쟁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손정미 (인문대 국문과)

東國漫評

박성민

만평을 이어받으며

삼 개달에 되었다. 이 한컷에 담긴 그림을 보고 독자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 또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문을 볼 때 만평을 내놓지 않고 보는 이유가 한컷에 담긴 비판적이고 때로는 일갈스러우면서도 진지함을 잃지않는 매력에 있는 것 같다.

자칫 한컷의 만화로만 보고 웃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것은 독자들의 자유이고 권리이지만 한 컷 그 안에 자신들의 모습도 한 데 어우러져 있음을 간파해선 안 될 것이다.

이 난을 맡으면서 책임감을 조금이나마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좀더 신랄하고 비판적인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심이 앞선다.

동학 광장

목 먹 골

☞새내기 여러분! 축하합니다.

- 은방골, 목 먹 골에서 청년단체의 기개를 펼칠 경남고성인들의 입학 축하합니다. -고성 선배 조중수, 강현재
- 경향행정학과 92학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향과 학생회
- 수교과의 새시기가 된 92 새내기들의 입학 축하합니다. -민음과 사랑의 한 선배(91)가
- 92년 민주정부수립의 새세대에 92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 축하합니다. -민주·민주·통일의

시대로 진군하는 사회와 학생회 - 입학과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O.T에서의 그 멋진 연구, 귀여운 영혼의 현기, 미친개의 형근, 클레어의 성대, 일라리 플라리의 동류, 형석, 정민, 백정고 기개의 제석, 멋진 운전수 경일, 귀여운 마누라 승희. 그의 연구에 참여한 신입생학우 동 인간해방의 그날까지 싸웁시다.

92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합니다. 열심히 생활합시다. -후호회 재학생 일동

-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합니다. 92년 한해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되어 민중승리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대인이 됩시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학 축하드립니다. -법대 학생회
- 새로 입학하신 대외외국어학교 후배들 환영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인이 되자. -동문선배
- 신입생 여러분! 컴퓨터연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대해 축하드리며 우리 동아리에서 알찬 대학생활을 마음껏 누려 보세요. 한마디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D.U.C.A
- 불교대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인민대학 불교대 학생회
- 농업경제학과 92학번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91학번 일동
- 한번 와보세요 -불교대 노래패는 여러 새내기들을 기다립니다. -불교대 노래패 일동
- 詩를 쓰다가 밤을 지새운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러면 저희 동국문화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혹은,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詩를, 소설을 습작하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르는 학우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경상대 학생회

- 92학번 새내기들의 입학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국문화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민대학의 새세대 동국문화회
- 축하합니다 -수경누나의 졸업 축하합니다. 그리고 입대한 봉준이의 의무교수 1차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외과 후배
- 농경과 90학번 조도자(대리)의 군입대를 경축하며... 부디 건강한 군인이어라. -농경과 유덕화
- 그리고... ERIAN / 밝고 명랑하게 자라오. -ERIC
- 우리의 친구 일출이가 스케미 극단 창단 공연에 참가한대요. 일출이 화이팅! -동맹
- 경상대 학우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방송에 여러분께 자주 연락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안아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92년 신학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경상대 학생회

- 분수를 아는 수학교육과의 사랑스런 92학번 후배님의 입학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배일동
- 새내기여 탈패가 부른다. 오라! 화끈하게 인어주리라. -탈패 13기 일원단
- 사랑스런 경영(아) 92새내기 여러분! 활짝 열린 가슴으로 온방골 여러분의 뿌리내림을 축하드립니다. -미음 92(?) 은주선배
-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환영합니다. -고교미술사학과
- 자주상정에 입학하신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드립니다. 입학에서 하나되는 자주상정인으로 무력부러 자랑하십시오. -새·여·사
- 선봉국문 해내기들이여! 국문과에 들어오신것을 엄정, 무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것을 배우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씩박한(?) 선배
- 투일이 선배, 기철이, 군대 잘 갔다 오세요. 투일이 선배 비록 6개월이지만 많이 보고싶을거예요. 힘들어도 투덜거리지 말아요. 그리고 기철이 3년 뒤에 더욱 단단해진 너를 보고 싶어요. 물론 기철이. 더욱 밝은 모습으로 만나세요. -선경이
- 사랑하는 형 / 92년 우리 힘내서 열심히 또 열심히 개겨보자. -너의 사랑

은방골

기획연지 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

대학은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

“우리는 왜 대학에 들어왔는가?” 라는 질문은 대학생활의 출발을 계기로 하는 첫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대학인의 대학생활을 보면 4년동안의 ‘자기몰입’이 되어 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온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곧 대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 나아가 대학인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고민과 결부된다.

대학이 다양한 모습을 띠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대학·대학인이 사회와 역사앞에 부여된 책임 또한 방기해서는 안된다.

대학의 지위와 역할

“요즘은 대학이나 나와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면 되지 뭐 바라나.”
흔히 대학생활을 하며 한탄쯤 듣게 되는 얘기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로부터 듣는 이러한 얘기들은 지배권력이 교과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그리고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 왜곡된 대학에 대한 인식이다.

왜곡된 대학관

서울시내 대학주변의 문화를 보면 소비·향락업소가 주를 이룬다. 이를 보고 사회에서는 ‘대학 문제 많다’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왜곡된 대학관을 갖고 그에따라 생활하는 대학인 스스로의 잘못이다.
왜곡된 대학관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학문의 성역’으로서의 대학관이다. 오랜동안 ‘진리의 상아탑’으로 규정된 대학은 오직 학문연구 활동이 그 본분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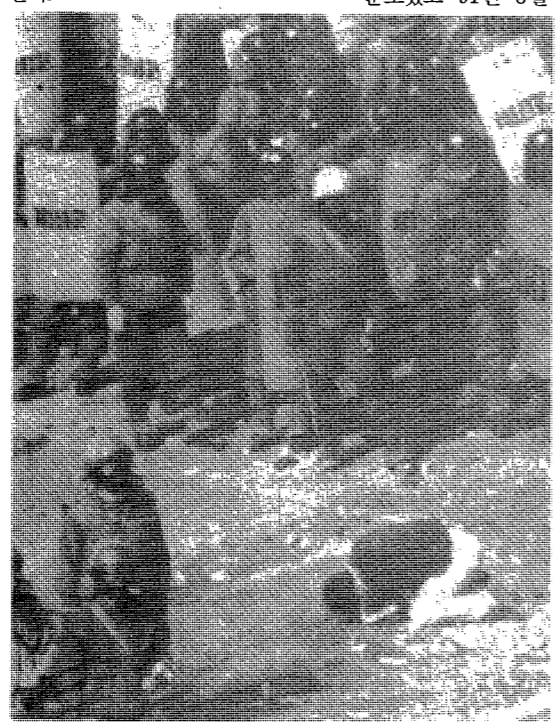
그러나 대학에서 진리의 상아탑을 쌓기 위한 학문·사상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정권은 대학을 사장의 낡은 틀을 끼는 역사의 창조자가 아닌 지배이데올로기에 맹목하는 인간을 기르도록 목을 죄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교육사이기도 하다.
둘째 ‘계층상승의 도구’로서 인식되는 대학관이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열 뒤에는 절수에 따라, 아니면 미리부터 졸업후 취업을 생각한 학과·대학 선택의 어두움이 있다.
‘전문직업훈련소’에서 4년동안 법학을 공부한 대학졸업생은 인간을 구속하는 악법의 첩제보다 권위있는 자리에 앉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의 망치만을 치고 싶어한다.

셋째 ‘남만의 정’으로서의 대학관이다. 대학에서 ‘남만·사만’이란 것은 아마 신입생을 포함한 대학인의 대부분의 정서일 것이다.

그러나 ‘남만적 대학’은 현실을 도피한 ‘안주의 자유’를 가져 온다. 안주의 자유는 ‘나약한 지성인’을 만들고 제법에 탄압받는 노동자, 자본주의에 죽어몰린 빈민, 외국농사꾼에게 자기의 눈을 빼앗긴 농민의 고통보다 애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더 걱정되는 대학인을 만든다.

대학의 사회적 기능

대학은 사회와 역사를 메어놓고 독립적일 수 없으며 사회·역사발전의 선동자로서 그 임무를 다해야 한다.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지 않던 시점에서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다. (가운데) 이 학생은 전남대학교에서 4년 동안 법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한 뒤 현재 대학원생이다.

지난해 4월 대학1년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권에 분노했고 91년 5월 명동은 연일

가온다. 이러한 자기몰입은 도서관에서 학과공부에 열심인 학생, 당구·미팅 등에 바쁜 학생, 화열병을 던지며 최후탄가스를 마시는 학생 모두에게 스스로를 퍼붓는다.

‘삶의 지향’이 무엇이 되어 할까? 라는 영원한 질문은 결코 고전적 장소나 잔디밭의 대화에서 나오지 않는다.

삶의 지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은 사회를 역사 구조적으로 보는 인식에서, 그리고 그 인식이 토대된 실천에서, 다시 실천을 통해 깨닫는 새로운 인식과정에서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지난 12년동안 받아왔던 관제교육의 썩은 때가 있다. 지금도 진실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수많은 장치를 정권은 활용하고 있고, 마치 신문지상의 기사가 진실인 것만 같고 머릿속에 굳혀 버리는 사람이 있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속에는 지배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체계, 사상, 제도를 거부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학내 불합리한 요소의 척결, 그리고 학원 자유를 위한 모든 행동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된다.

이제 교내에서는 다 시 활기를 띤다. 만해광장에서 농구부를 하는 학생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도서관에서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 그리고 미팅에 바쁜 학생들 등 다양한 모습을 띤다.

자기의 개성이 뚜렷한 모습들이 대학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본 ‘내가 왜 대학에 들어왔는가?’, ‘대학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들을 선택들의 타성화된 생활, 기성세대의 문화를 답습하는 행위로 잊혀져서 안될 것이다.

아직도 대학과 대학생은 사회의 부러움을 사는 지위와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과한 신입생에게 대학은 ‘할 것 많은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시절의 생각은 왜곡된 대학관일 수 있고 스스로를 ‘전문지식·기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부)

학문은 인식과 실천을 포함한 행동 사회현실에 분노할 줄 아는 용기 필요

흔히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고여있는 우물에 맑은 샘물을 계속 붓는 것’이라 비유한다.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일은 역시 대학의 임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학에서의 학문은 단지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식과 실천을 결미하는 것이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이라 했을 때 사회변혁, 그리고 학원자주를 위해 싸우는 선배들의 모습은 곧 올바른 학문으로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4년동안 대학생이 가져야 할 제1 인식은 ‘역사의 창조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라’는 것이 다.

최후탄가스로 가득했다.

“대학생이 공부나 하면 되지 뭐 모나!”라고 불만스러워하는 시민의 성도가 시위가 있는 거리를 뚫는다. 그러나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학생 운동은 ‘역사를 창조하는’ 행위다. ‘빨갱이, 문제학생, 운동권’이란 단어들로 학생운동을 매도하는 권력과 언론의 행위는 역사의 방조자일 뿐 아니라 역사비보의 길을 걷고 있으며 대학을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대학문에 서서

대학4년은 학문(즉 인식과 실천을 병행하는 행위)을 탐구하면서 언제나 ‘나의 삶의 지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다

한 모습을 띤다. 자기의 개성이 뚜렷한 모습들이 대학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본 ‘내가 왜 대학에 들어왔는가?’, ‘대학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들을 선택들의 타성화된 생활, 기성세대의 문화를 답습하는 행위로 잊혀져서 안될 것이다.
아직도 대학과 대학생은 사회의 부러움을 사는 지위와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과한 신입생에게 대학은 ‘할 것 많은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시절의 생각은 왜곡된 대학관일 수 있고 스스로를 ‘전문지식·기술인’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부)

교/수/칼/럼

① 창조를 위한 파괴

젊음은 과분하게 찬미되는 불과 비슷하다. 그러나 불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뿐인 생을 통해 그것은 단 한 시기를 동안 허용된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자기가 만약 신이었다면 젊음을 인생의 맨 끝부분에 배치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는 인간이 젊음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뒤 나머지 시간을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라고 단식한 바도 있다.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그토록 찬탄되는 젊은 시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문턱에 들어섰다. 게다가 지옥에 비유되는 입시의 고통스럽고 너절한 과정도 모두 벗어났다. 그 타율(他律)

시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이 대학이전과 대학생활을 어떻게 변화하게 하는가. 한마디로 고등학교까지는 절대적식을 교육했다면 대학에서의 학문연구란 무

수한 상대적 지식에 눈뜨는 기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교사의 가르침이나 교과서 내용, 참고서의 설명들은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한다. 여러가지 설명 중에 절대로 틀린답과 절대로 합당한 정답으로 나누어지므로 정답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상태의 입시 제도는 불행해버리고 만다. 맞지 않으면 틀린다는 이 이치론(二輪論)적 절대주의 교육은 고등학교 교

정답이 지닌 모순을 생각하는 곳

의 긴 과정이 전적으로 무의한 것이었다고 간단히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에, 생각해야 할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은 바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당사자들이다.

도대체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결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먼저 의미한다. 서울활동, 부친공, 수면시간, 독서행위, 교우 등등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전적으로 대학생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부모나 스승의 판단에 맡겨지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모나 스승은 조언자의 입장으로 물러선다. 이때 본인에 의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권리라 말할 수 있다. 비록 “자유는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선택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대체로 타인의 몫이 된다. 대학의 학과선택, 취업의 결정, 중매결혼 등의 경우에서 어느 정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자유는 선택이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므로 다시 사르트르의 명제로 설명한다면 “자유는 책임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요컨대 대학생활의 자유는 선택에 의해 구현되고 선택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대학생활은 자유와 선택과 책임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며 그것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 인식의

정으로 종결된다. 대학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의 과정과 다를게 없다. 그러나 대학은 이치론적 절대주의 대신에 무수한 지적 가능성의 세계, 수 없이 많은 정답과 정답이 지닌 모순에 대해 생각하는 곳이다. 대학은 지적 절대주의 대신 지적 상대주의에 눈뜨는 곳이며 그런 점에서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보다는 학생과 더불어 함께 연구하는 사람, 우주처럼 넓고 큰 지식의, 무한성에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다.

대학은 또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는 곳이다. 역사와 사회에 대해 개인의 희망과 이상에 대해 정신적 구결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립하고 독립하며, 비판의 정신과 용기로 자신의 내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관조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이의 꿈과 동경, 낭만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리라. 그것이 비록 허황하고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젊음을 황폐하게 하거나 삭막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 비한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의 투자일 것인가.

이러한 낭만적 체험과 사회이탈로 자신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낯고 진부한 관습을 파괴하는 방법이며 기성세대가 타성적으로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고 저 근교한 세계 질서를 무수히 젊은이가 새로 태어나는 창조적 재생의 방법이기도 하다.

창조를 위한 파괴의 시대, 최종적 승리를 위한 끊임없는 부정과 비판의 시대, 그것이 곧 자기확립을 향한 대학시대의 빛나는 모습이 될 것이다.
홍기삼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알고 넘어갑니다

이제 개강이다. 얼마전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강의 시간표를 들고 아슬아슬한 낯선 강의실을 기웃거리며 다닐 때다.

고등학교때와는 달리 자율적인 강의시간, 과목선택에서 신입생들이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본교의 최저졸업이수학점은 1백40학점(단, 한의학과 의과는 1백60학점)이다.
그러나 매년 졸업시기만 되면 최저졸업학점이수율 하강도 졸업할 수 없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이의 이유는 다양하나 대개 동맹강의를 중복 이수하였거나 타계열 교양선택을 부족하게 이수하는 등 학생들의 학점에 대한 교과과정 체계 인식부족에서 연유한다.
본교의 교과과정 구성은 크게 교양교육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되는데 1학년 신입생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과정중 전공교과 1과목등이다.
여기서 전공교과 과목(예:~개론)을 필히 수강해야 함은 두말할

졸업 이수 학점

나위없고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되는데 교양필수는 다시 공통필수와 영역필수로 나뉜다.
공통필수는 불교개론, 불교문화사, 철학, 국어, 영어, 영어실습 등으로 각과마다 1.2학기 순서만 바뀔뿐 모두 수강해야 하며 영역필수는 일반 수학(화학, 물리학, 생물학)은 이과대, 공과대, 농과대(농업경제학과 제외)에서 1과목을 선택해 수강해야 하고 수교과는 일반수학만 수강하면 된다.

위 단과·과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들의 영역필수는 학문을 포함한 외국어를 1과목 택해야 한다.

또 이과대, 공과대, 농과대, 경상대, 사범대의 가교과, 한의예과, 의예과는 필히 전산학실습강의를 들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영역필수과목들은 통년과목으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여야 학점이 인정된다.
이상의 과목은 필히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과락(F)이 생기면 다음 학기에서 꼭 취득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또 가장 주의할 강의 선택은 교양선택과목으로 불교대, 문과대, 사

범대(수교, 체교, 가교 제외), 인문과대학 미술, 사회복지과 제외 등은 인문과대학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20학점 이상을 충족시켜 이수해야 하며 법과대(경주·법정대), 사과대(경주·사회복지과) 등을 사회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20학점을 경성대(경주·상정대), 농과대의 농경제과는 사회과학을 제외한 최저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 이과대, 농과대(농경제과 제외), 공과대, 자연과학대(수교, 가교 제외)는 자연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6학점, 수교·가교과는 자연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18학점을, 예대, 사범대의 체교과는 모든 분야에서 최저 2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소수계열분야에서 6학점까지는 이수 가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다지 까다로운 수강신청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선배나 교과위원회등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수강신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박수로 기자)

올바른 한표행사를 위한 기획광고①

홀로 백로가 되렵니까

정치의 ‘정’자만 들어도 신물나는 당신, 까마귀떼에 섞이지 않고 홀로 양심을 지키며 깨끗한 백로로 살고자 하십니까?
당신 한 마리의 백로가 백의 까마귀를 불러올 뿐입니다.
젊은 유권자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체투표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오는 12일까지 우리모두 부재자 신고를 해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마당에 참여합시다.

동대신문사



국과수 허위검정과 강기훈 항소공판

강기훈 항소심 '무죄' 마땅

법·과학은 권력도구아닌 사회발전의 무기 유서대필 사건... 권력이 조작

그 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증거재판에서 지동설을 철회하고 나오던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증고등학 생시절 과학 시간에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가법적 생 각하면 하나의 이야기거리이 지나 지 않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 면 우리는 현대 독일과 닮고 있는 절망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의 무게에 얽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릴레오의 이 광범한 이야기를 소 개로 '갈릴레오의 생애'라는 회극을 쓴 사람은 현대 독일 최대의 극작 가라는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브레히트였다. 수 세기전 갈릴레오가 부딪혔던 문제는 반 세 기전의 브레히트에 의해서 그것이 지나간 암흑시대의 추억거리가 아 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인이 고발되었다. 그리고 소련의 해제로 인하여 인공위성에 송신한 우주인이 우리 미아가 될 지도 모 른다는 이야기가 술안주잡이 되는 1992년의 한국에서도 브레히트의 회극은 약간 각색된 채 현실의 법 정에서 여전히 공연되고 있는 것이 다. 이 회극은 말해준다.

"법은 권력의 시나이고 과학은 권력의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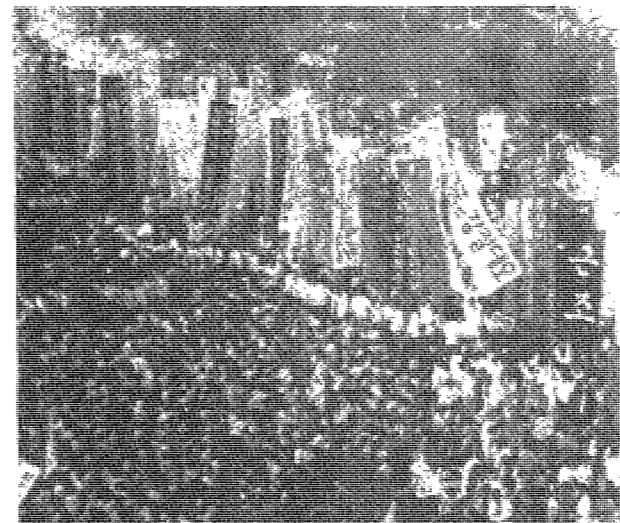
일신의 출세를 위하여 지동설을 부인하는 데 앞장선 지난날 한 계 자를 향하여 갈릴레오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진실을 모르는 자는 단지 한낱 바보에 그치지오. 그렇 지만 진실을 알고도 그것을 거짓이 라고 칭하는 자는 범죄자란 말이 요!" 갈릴레오 자신이 이후에 진 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의연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하여 우리는 눈감아

주기로 하자. 왜냐하면 권력이란 참으로 집요하고 가공할 만한 것이 며 한 개인이 맞서 싸우기 위해서 는 목숨을 던질 각오가 필요한 것 이기 때문이다.

강경대씨가 이른바 공권력에 의 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타오르기 시작한 91년 5월 정국은 잇따른 분신사망으로 이어지면서 긴박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때 권력이 진화전력으로 꺼낸 것이 이른 바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사건이 었다. 즉 서당대에서 자살한 강기 훈씨의 유서는 전인턴 총무부장 강 기훈씨가 대필해 준 것이라고 검찰 이 주장하면서 그를 자살방조혐의 로 입건하였고, 동시에 정권의 부 도덕성을 온 몸을 던져 탄핵하는 저항을 잠재웠던 것이다. 그것만으 로도 권력의 첫번째 의도는 달성되 었지만, 사후처리로서 강기훈씨가 과연 강기훈씨의 유서를 대필해주 었는지는 것이 법원에서 문제되 었다. 강기훈씨가 언제 어디서 어 떻게 유서를 대필해주었는지에 관 하여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카 프카체열의 소설이나 요즈음 유행하 는 포스트모던 계열의 소설로 분류 되기에 손색이 없는 검찰공소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유서의 필체 는 강기훈씨의 것이 아니라 강기훈 씨의 것이라는 이렇듯 거창한 이른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검정 결과였다. 자세한 필적검정의 결과 나 논리가 결여된 국립과학수사연

구소의 필적검정결과에 대한 반박 으로 누가 보기에든 훨씬 성실하게 이루어진 일련의 오니시 요시오씨 의 정반대의 필적검정결과가 변호 인측에 의하여 제출되었지만 재판 의 결과는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필적검정에 관하여 국내최고의 권 위를 지니고 있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검정결과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결 한 재판부는 여러 곳에서 스스로의 자신없음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 였지만, 검찰은 재판부를 탓해보았 자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데 강기훈씨 사건이 항소심에서의 2회전을 준비하는 사이에 재미있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 구소의 문서분석과제자들이 뇌물을 받고 허위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들과 함께 폭로된 것이다. 게다가 뇌물검정의 정본인은 바로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감정했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였던 것이다. 순식간에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을 땅바닥 으로 끌어내린 이 사건이 폭로된 경위에도 웃지못할 많은 이야기거 리가 있지만 생략하기로 하자. 예 상했던 대로 검찰은 쇼트트랙의 김 기훈 못지않은 뛰어난 순발력으로 김모씨가 뇌물을 받았으며 허위검 정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사들여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잠 시 당황했지만, 항소심에서의 승리 에는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의 승 리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검찰의 형식적 논거는 과학적이었던 실 질 적 논거는 권력이었으며, 이제 과



학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지만 권력 의 힘은 여전히 천상에 있기 때문 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나 순 진화했다. 법은 공정한 것이고, 과 학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적어도 법은 공정하고자, 과 학은 올바르고자 노력한다고 믿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할 때 가 되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 는 행성인 것처럼 법과 과학은 권 력의 주위를 도는 행성인 것이다. 민주화를 위하여 흘렸던 수많은 죽 음에 대하여 과학의 후광을 등에 업고 국민을 우롱해왔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이란 권력의 화대로 모피를 걸치고 살아가는 창 부임을 알아야 한다.

갈릴레오의 과학은 권력의 탄압 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갈릴레오를 탄압했던 교회의 권력과 달리 현대의 국가권력은 자연과학과 사이총계 지내는 것이 이득다는 것을 깨닫고 타협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국가 권력은 이제 자연과학의 힘과 명성 을 이용하여 사회과학과 인간을 탄 압한다. 법정은 권력이 자기 극단 의 배후들로 공명하는 거대한 사회 적 극장이며, 과학은 소도구를 마 련한다. 자신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불붙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관련 재판기록. (사건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일간신문 총선관련 보도 형태

정보화시대에 있어 일간지 의 보도기사는 국민의 정치 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최근 총선과 관 련한 각 일간지의 보도태도 는 친여성향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에 민언협등 5개 민 간단체 연합으로 발족한 '선 거보도감시 연대회의'의 모 니터 자료를 토대로 일간 신 문의 총선관련 보도기사를 비판하고 언론의 보도행태를 알아본다. (편집자)

있고 여당쪽 우세지역을 집중 적으로 취재하고 있다. 또 2월25일자 3면 '민주당의 전국구인선 본주' 해설기사(김 윤수기자)는 민주당의 전국구 현급 공천내막을 폭로했으나, 정치자금이 풍부한 민주당이 개파별로 전국구를 현급공천하 는 이중적 정치자금모음에 대해 서는 침묵하여 권파적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의 '지하지도 건설' 발표와 관련한 2월24일자 기 사에서 이 발표의 허와 실에 대 한 해설기사도 없이 1면 머리 기사로 율령으로써 여당이 좋 은 이미지를 주는 한편 관련계 입을 오히려 조장하는 모순된 보도태도를 보였다. 세계일보는 다른 일간지보다 선거관련기사의 비중이 적으면 서 23일자 2면기사(박진

정부시책 보도...간접 선거 효과 선거참여보다 정치적 무관심 조장

와 관련한 일간지의 보도형태 는 '현대정치=이미지정치'의 관 계를 충분히 해설하고 있다. 선거보도감시 연대회의의 1차 신문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중앙 등 중앙일간지는 스 총선의 의미와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정치허위주의 및 정치적 무관심 조장·대통령 임을 포함한 정부의 선선용 공 약을 여과없이 부비판적으로 보도·삼양당중심의 보도가 지 나쳐 전국연합·통합민주당 등 진보세력의 선거운동을 축소하 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겨레신문은 '반민자, 비민주'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는 비교적 공정한 보도를 다루며 '친민주'입장이 기사제목에서 나타난다. 반면 조선·중앙 등 중앙일 간지는 '현대정치'를 교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이는 선두 주자는 당면 조선일보로, 2월26 일자 특집 '총선현장 서울'에서 민주당에 관련된 기사에는 중 적적으로 '유리한 상황, 자신 감, 탄탄한 지역기반, 지역민원 의 해결사' 등으로 표현하고, 민 주당관련 기사에서는 '힘든 싸 움, 당황 조직분규, 마음을 놓 지 못한' 등의 말을 써서 민 주당 우세측에 민주당이 힘겹 게 도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각능력의 한계, 대중매체를 통한 국민의 정치이해, 실제보 다는 위안을 강조하는 대중매 계의 속성이라는 세가지 명제 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14대 국회의원 총선거 현대정치는 곧 이미지정치인 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각능력의 한계, 대중매체를 통한 국민의 정치이해, 실제보 다는 위안을 강조하는 대중매 계의 속성이라는 세가지 명제 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14대 국회의원 총선거

동약로

지난 2일 92학년도 신입생 입학 식이 치러진 반해광장은 약간 쌀쌀한 날씨임에도 신입생, 학부모, 그의 재학생들로 붐볐다. 멋있는 대학생활을 하리라는 희망과 결의에 찬 신입생의 눈동자, 입시지옥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 고 어엿한 대학생이 된 것을 자랑 스러워 하는 학부모의 흐뭇한 미소, 그리고 좋은 선배가 될 것을 다짐하는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배님, 국어·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게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편가 다르죠?", "하기 나 름이지. 너희 수강신청했지. 강 의 들어보구 석연치 않거나, 듣고 싶은 강의 있으면 정경기간에 바 꾸세요."

"우리, OO이 어디 있었니?", "저기 '공과대학'이라고 써있는데"

새내기 맞이

앞에서 셋째를 뱃속에 있었잖 아요"라며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 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어하는 새내기였

햇과 풍선들이 눈길을 끌었다. 입학식을 마친후 이명진(정기4) 총학생회장은 "19%인상의 등록금 고지서 발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학교측의 일방적인 처사입 니다. 등록금부정은 관방이 아니라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앞장서야 할 문제"라며 전동국인이 참여 할 것을 당부했다.

갖 눈은 든 아기에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듯 대학생들 전면에 걸쳐 호기심을 갖는 새내기에게 이런 모습들이 과연 신기하게만 보였을까?

이런에 장학금을 받은 한 신입 생은 "장학금을 못받았던 입학 금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움을 거 예요"라며 감회어린 표정을 반 면, 또다른 한 신입생은 "이제 거 난한 사람은 장학금도 받을 수 없 는게 아니냐"라는 푸념을 늘어놓 았다.

"새로운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 이 있는데 과연 학교당국, 교수, 학생이 하나된 새로운 모습으로 새내기를 맞게될 날은 언제가 될 지. (이명진 기자)

학단협 6공실정(失政)공정회

6공화국의 집권 4년에 대한 지적 과 실정(失政)을 학술적으로 평가 하게 될 '6공화국 공정회'가 학술단 체협의회(이하 학단협), 전국대학 원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장사노동 조합의 주력으로 오는 6일 오후6시 에서 오후9시까지 명동 YMCA강당 에서 열린다.

이년 공정회는 교수 및 학생연구 자들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각 분야별 연구발표와 종합토론의 형 식으로 진행된다.

공정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 치:고성정(학단협 정책위원장), 최

조 광 회

1935년 히틀러는 베를린 의사당 방화사건을 공산주의자의 소행으 로 호도하고 불가리아의 혁명가 디미 트로프를 방화범의자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권력 정당의 계기로 삼았다. 이 때 디미트로프 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자기 변명을 하였다. 5년 후에 브 레히트는 이에 착안한 희곡 '갈 릴레오의 생애'의 첫 대본을 완성 하였다. 그리고나서 몇년의 시간이 흐른 뒤, 히틀러의 명연에 의하여 지구의 주위를 돌던 태양은 명성을 내리던 히틀러가 사라지자 회전을 멈추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힘겹게 돌기 시작하였다.

6공화국 실정 학술적으로 비판

오는 6일 명동 YMCA강당에서

이와 함께 학단협은 물가문제, 국가보안법 등 6공화국을 분석할 수 있는 측면을 60여개로 나누어 기술한 '6공화국실정(失政)백서'를 오는 12일 발간한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경제:독 점자본과 독점제, 경쟁유착, 물가 문제, 금융실명제, UR법률·복합의 공동 대외경제 비판 △정치:5공정 산, 지방자치제, 대외종속성, 3당야 합 △군주:통일 △노동:임금·근로 조건, 노동운동단합, 산업계제 △농 촌:수입개방, 농촌의 구조적 모순 △여성:성의 상품화, 가부장제문화

△언론:권력과 언론자본의 결합 △ 대중문화:파소비, 권력과 스포츠 △교육:교육환경, 입시환경 △사회 복지: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제도 △환경:식수위생·산업폐기물, 핵문 제, 포퓰리즘 △지역:지역불균등 현상, 지역감정 △토지 및 주택:주 택건설 및 신도시 문제, 철거폭력 과 계개발 △교통:대도시 교통문 제, 고속전철계획의 문제점 △과학 기술:과학기술입국론, 과학기술정 책 △종교:종교(宗敎)유착과 종교 탄압 등으로 4백대 분량으로 이루 어져 있다. (박기철 기자)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21세기를 향해 거듭 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 92학년도 남·여 신입생모집 (주,아)

1. 교육과정: 전자계산 2년 과정
2. 모집인원: 1,200명
3. 응시자격: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동등한 학력소지자
4. 원서교부: 92.2.20(목)~92.3.5(목)
단, 응시자가 본교 수험생임을 초과할 때는 원서교부를 중단함.
5. 원서접수: 92.2.27(목)~3.5(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일요일도 접수함.
6. 교부 및 접수처: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7.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나 졸업(예정)증명서.....1부
8.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적성검사, 면접 (92.3.7(토) 11시)
9. 특기사항

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게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국가기술자격 검정 정보처 리기사 2급, 전자계산기 조작응용기사 2급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나 졸업후 국영기업체,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기타 관련분야에 취업 추진함.
다 재학생 성적우수자는 본원 재배학인 일반 동북전자계산기 전문학과에 유 학기회 부여함.
라 VAX/6310, VAX/750, 386 P.C, XT 등 국내 최대규모의 실습기상제 보유
마 우수한 교수진을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
바 정보처리 및 조직응용기사 2급 취득자는 독학사 취득과정의 1.2단계 면제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전화: (02) 260-3522~6, 267-6128

동국학원이 유지경영하는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명성여자고등학교
명성여자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명성여자중학교
명성여자중학교

교육지표 및 전자계산원의 설치와 운영

1906년 교육입국의 기치아래 불교계의 선 각자들이 정재(淨財)를 모아 이룩한 본 동국 학원에서는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 퇴의 정진"을 그 교육지표로 삼고 86년의 역 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국대학교를 유지, 경영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학원 산하 초· 고등학교의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 으며, 이미 17년전인 1975년에 21세기 정보산업 시대를 대비한 전산요원의 양성에 뜻을 두고 국내 최초로 대학 병설 전자계산원을 설립하 여 8,000여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 이 들은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각 기업체에서 정보 산업사회의 자랑스런 역군으로 성심껏 일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
대
학
원
전
자
계
산
원
부
속
고
등
학
교
부
속
중
학
교
부
속
중
학
교
부
속
중
학
교

그동안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 록 원

등록금 인상해도 사학발전 요원

사학재정위기, 그 원인과 해결방향

1988년 대학 납입금 자율화조치가 취해진 이후 매년 신학기 초가 되면 납입금을 둘러싼 학교측과 학생측의 한판 실경이 벌어진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대학당국과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과중한 학생부담을 막고자 하는 학생측의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학교 보조금이 많고 교육부가 수입요를 결정하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큰 갈등이 없던 간소교육비를 감안해 자율 책정토록 되어 있는 사립대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사학재단에 대한 불신이 겹쳐 납입금 인상에 대한 학생측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와 같은 갈등의 이면에는 대학교육의 팽창과 대학교육재정의 현실이 드러져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납입금 문제의 배경과 대학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납입금 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8.1%에 달해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고등교육의 질의 회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대학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사학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1990년 현재 전체 대학생의 약 80%가량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데, 특히 1980년 이후 사립대학 재학생이 더 늘어났다. 사립대학은 법인 제정이 영세하고 정부의 보조가 거의 없어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을 높이면 고등교육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로서는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국민의 교육요구를 수용하는 효율적인 방책이었던 것이다.

국가는 사학을 통해 대학인구를 확장해 가면서 사학재정을 지원하는데 대신 학생이 부담하는 납입금을 인상해 감으로써 사학재정을 보전



◇국가의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시설확충, 첨단 실험실습기자재 도입 등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노력은 단지 원성이 다. (사진은 지난 2일 재단전입금 환축,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100% 중앙(연방)이나 지방교육당국(주 정부)이 부담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고등교육비의 약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없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만 수업료가 부과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비교적 학생 부담이 많은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도 한국대학재정의 개인부담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 미국은 공립대학의 경우 주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45%를 지원받고 총 수입 중 학생 납입금의 비율은 14.5%이다. 사립대학도 주 정부로부터 2%의 지원을 받으며 총 수입 중 학생 납입금의 비율은 39%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은 거의 전액이 국고에 의해 지원되며 공립대학은 38~88%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정부부담이 22.4%로 학생납입금의 의존도는 66%정도이다. 미국은 기업과 사회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일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의 납입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교육선진국 국고부담 50%이상 차지 국가, 교육환경 개선위해 과감한 투자 필요

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1976년도 이래 사립대학의 납입금 인상률을 그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1978, 1979, 1980, 3개년 동안은 제외하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대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진 1980년대에 들어와 물가상승률과 납입금 인상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와 같은 납입금 인상이 비단 사립대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국·공립 대학의 납입금도 대폭

인상된다. 1980년도에 27만 5천원 하던 인문계 신입생의 일년 납입금이 1981년에는 69만8천원으로 올라 1980학년도 2.5배를 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의 경우 사립 뿐만 아니라 국·공립 대학에 있어서도 학생부담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재원구성에 있어 국고부담과 학부보 부담이 각각 50%와 45% 선이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1%에 그치고 있고 학부보 부담률이 자그마치 80%를 차지하

고 있다.

한국대학에 있어 이와 같이 납입금 의존도가 높은 근본적 이유는 국가가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사학의존도가 높지 않을 뿐더러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구석국의 경우 국·사립 구별없이 고등교육비의 재원을



◇교수채용연기, 무엇 때문인가

장기적인 대학발전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역량있는 교원의 충원'이라는 대답은 보편타당한 말이다.

특히 다른 대학에 비해 교수확율이 떨어지는 본교로서 능력있는 교원의 영입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매년 교수채용 때마다 되풀이 되는 학교-학생간의 갈등과 인맥·파벌구도 속의 낙점은 대학발전을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는 지경이다.

본교의 교수채용과정을 살펴보면 ①교수초빙연구위원회(이하 초빙연구위)의 심사기준 확정 ②초빙공고 ③초빙연구위 서류검토 ④학과심사(공개강의, 서류심사등) ⑤초빙연구위의 학과심사 결과 심의 ⑥총장면접 ⑦교원인사위원회 심의(최종 결정) ⑧재단 승인 순으로, 복잡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당국이 학과추천 1순위를 거 부할때 쓰는 '단골메뉴'이자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상인데, 신학대학·기독교사학에 비하면 융통성이 있다고는 하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따로 느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참여 방법의 문제다. 교수채용과정에서의 학생참여에 대해 '평가를 하면 얼마나 깊게 하겠느냐는 교수들의 불신으로 '참여무용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교수들간에 학생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고 있고 올해 1학기 교수채용에서도 일부 학과에서 인정적으로 진행돼 앞으로 교수채용에서 학생참여는 더욱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내용성있는 참여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교과위의 말처럼

심사미공개... 갖은 의혹 불러

학생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학교당국, 학과심사결과 중시해야

고 엄격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채용연기 사태는 이미 관행화되고 오래다.

먼저 채용과정상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학과와 학교당국의 심사기준의 차이이다.

공개강의·세미나 등을 통해 후보자의 교수능력, 인품까지를 평가하는 학과심사에 비해 학교당국의 심사(초빙연구위, 교원인사위원회)에는 '어느 명문대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냐'의 학벌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학교당국의 심사는 학과심사보다 지엽적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 한 관계자는 "이제껏 학원·인맥이 작용한 학과심사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학교 당국의 심사는 바로 이러한 과외수 간의 담합을 감시하고 보다 능력있는 교수를 영입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학과심사에서 후보자의 자질보다 인맥구도에서 후보자를 뽑으려다 교수간 불화양상이 드러나 재단에 보고된 적이 있고, 올해 역시 학과내 교수간의 신경전으로 채용이 연기된 학과도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공개강의의 평가를 무시하고 '학벌귀족주의'만 지향하는 학교당국의 심사 태도는 학교발전을 위해 과감히 정정되어야 한다.

또하나의 논란은 후보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불교신자' 여부까지

이제는 참여의 당위성보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하는 방법론이 모색돼야 한다.

또 확인되지 않은, 무성적인 추측과 실증만으로 'XX계기'형식의 참여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이번 무력학과 교수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학과심사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참여의 뜻은 이해하나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마다 쥐는 이러한 대결 양상은 먼저 학교측이 스스로 채용과정 및 심사결과 공개 △학생참여의 공개강의를 학과심사에 규정하는 등 학과-학생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참여의 수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해소를 수 있다. 초빙연구위가 학과심사결과와 공정성을 평가, 재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측 또한 학과심의 권리를 확보하고 학교 당국의 심사를 감시할 수 있고 이 미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야 한다.

올해 2학기 교수초빙은 5월로 계획되었다. 과연 누가 고질적인 교수채용과정의 참모를 끌 것인가? 학교당국·학과교수·학생 그 누구라도 '등록발상'의 대의를 저버린다면 6학기까지 채용이 유보된 무력학과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다른 과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병민 기자)

납입금 문제의 배경과 대학 재정실태

해방이후 40여년 동안 고등교육 인구는 급속히 팽창해 왔다. 교육인구의 급속한 팽창은 그만큼 많은 교육재정의 동원을 필요로 했다. 교육열이 높아 교육받고자 하는 연주는 많은데 비해 이를 수용할 교육시설과 교육재정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국가가 사학의 설립을 통해 교육시설투자를 위한 민간재정을 동원해 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학생 납입금을 부과함으로써 큰 재정적 부담없이 고등교육 취학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놓는데 성공하였다. 1970년까지만 해도 8.8%에 불과하던 고등교육 취학률이 1980년에 16.0%, 1990년에

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1976년도 이래 사립대학의 납입금 인상률을 그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1978, 1979, 1980, 3개년 동안은 제외하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대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진 1980년대에 들어와 물가상승률과 납입금 인상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와 같은 납입금 인상이 비단 사립대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국·공립 대학의 납입금도 대폭

인상된다. 1980년도에 27만 5천원 하던 인문계 신입생의 일년 납입금이 1981년에는 69만8천원으로 올라 1980학년도 2.5배를 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의 경우 사립 뿐만 아니라 국·공립 대학에 있어서도 학생부담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재원구성에 있어 국고부담과 학부보 부담이 각각 50%와 45% 선이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1%에 그치고 있고 학부보 부담률이 자그마치 80%를 차지하

고 있다.

한국대학에 있어 이와 같이 납입금 의존도가 높은 근본적 이유는 국가가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사학의존도가 높지 않을 뿐더러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구석국의 경우 국·사립 구별없이 고등교육비의 재원을

◇본교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6톤.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커피잔, 식당오물 등 쓰레기를 가득 실은 청소차량은 성산동부근 난지도로 향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수고하고 심나다"라는 따듯한 말은 커녕 환경미화원 '할머니'·'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힘든 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날마다 후사당하고 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상차의뢰좌 5명, 내부 유리지 2명, 야간조 4명, 내부조 39명, 소장 1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교 내 2만5천5백57평을 청소하고 있다. 또 1인당 청소면적을 보면 6백여평으로, 이는 서울 시내 다른 대

학의 평균 5백평보다 무려 1백여평이 나 높다.

이에 대해 관제과의 한 관계자는 "1인당 청소면적이 타학과와 같은 수준이 되려면 환경미화원의 수가 적어도 60명은 돼야 한다"고

평을 이야기 한다.

평간연령도 65세가 넘는 고령으로 일할 계약시 20~60세 사이로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이유로 학교당국과 용역업자인 명신개발(주)이 서로 눈감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시간도 오전7시에서 오

후5시30분까지 되어 있어 노동법에 의한 8시간 근무보다 무려 2시간 30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1인당 청소량, 근무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은 한달에 24~27만원으로 인건비파도 환경미화원의 경우 40만 원에 비하여 상당히 적고, 상여금 등 상당한 의욕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사실을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중앙도서관 4층 복도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강의실 휴게실을 보면 담배통, 휴지개, 찌꺼기 등이 즐비하게 떨어져 있어 누가 학교의 주인인지 의심케 한다.

중앙도서관 4층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있다. "복도에서의 썩연과 잡담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란 내 마땅히 다음과 같은 글귀로 붙여야 한다. "여러분이 무심코 버린 담배통조 하나가 환경미화원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을 수고스럽게 합니다."

(박기철 기자)

이와 같이 낙후된 대학교육 여건과 재정상태가 납입금의 부분적인 인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명백하다. 교육의 질적 낙후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국가의 재정 지원없는 사학화대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사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대학재정운영의 합리화이다. 각종 실험실습용구의 구입, 본교의 설치 등으로 부당산의 증식을 꾀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소홀히 해온 사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단비리와 기부금 일탈 등에 대한 의혹등이 불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대학교육을 민간자본과 학생의 부담에 맡겨 놓은 현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보편적 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납입금을 둘러싼 학교-학생간의 되풀이되는 갈등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다른 아닌 국가인 것이다.

윤철경
(한신대 강사·교육사회학)

공 고

'92학년도 교육실습신청서(추가) 및 교육실습비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실습기간: '92. 4. 6(월) - '92. 5. 2(토)
2. 실습대상자: '92학년도 현재 4학년 재학생으로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교육부에 보고된 자(지방학교 실습희망자 및 연구직학교 실습희망자는 필히 교육실습 동의서를 제출할 것)
3. 접수기간: '92. 3. 4(수) - '92. 3. 6(금) 17:00
4. 실습비: 사범대학생: 4,300원 나. 교직과정 이수자: 34,300원
5.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및 이부대학 교학과

'92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2학년 재학생
2. 신청기간: '92. 3. 4(수) - '92. 3. 6(금)
3. 제출서류: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1부
4.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30% 이내
5. 선발기준: 성적, 인성, 적성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해당학과

1992년 3월 일

사범대학장

도서차람증 발급 및 미납도서 반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92학년도 1학기 도서차람증을 다음과 같이 발급하니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1992. 3. 4(수) - 3. 31(화)
2. 준비물: '91학년도 도서차람증(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제외) 나. '9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영수증 다. 최근 촬영한 반명판 사진 1매
3. 발급장소: 도서관 열람과(1층)
4. '92학년도 신입생은 과대표를 통하여 도서차람증 용지를 일괄 수령하여 일괄 신청한 뒤, 위 기간 중에 개별적으로 발급받기 바랍니다.
5. 전학년도에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학생은 도서차람증 발급을 유보할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의 제 증명 발급이 중지되며, 조속히 반납하기 바랍니다.
6. '91학년도 도서차람증을 분실한 학생에 관한 발급은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추가등록 마감일까지는 '91학년도 도서차람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징병검사 판정기준 사전통보

'92년도부터 징병검사 대상자를 스스로 현역 입영 대상인지, 병역면제대상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징병판정기준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질병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체조건 등 세부 기준을 징병검사 통지서와 함께 교부함.

대구지방병무청장

공 고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전과를 실시함.

1. 모집학과 및 인원: 전자공학과(4명), 전자계산학과(12명), 전기공학과(4명) 화학공학과(4명), 산업공학과(10명)
2. 모집학년: 2학년
3. 지원자격: '92학년도 3월3일 현재 본교 자연계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나. 1학년 학기당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평점평균이 3.6학점 이상이며 다. 1학년 총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4. 제출서류: 가. 진학원서 1매(소정양식) 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다. 사진 3x4cm (반명판) 1장 [1개월 이내 촬영한 것] 라. 전월료 20,000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2. 3. 9(월) - 3. 10(화) 17:00까지 나. 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6. 전형일시: '92. 3. 11(수) 09:00 -
7. 전형방법: 영어, 일반수학, 면접, 서류전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할 것.

'92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희망학생은 소정기간내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1. 시험과목: 3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공통필수	21102	국어강독및작문1	2
"	22104	영어	2
영역필수	41122	일반수학1	3

2. 응시자격 및 과목: 가. 자격: '92학년도 신입생('92학년도 1학년 복학생 포함) 나. 과목: 3과목 중 2과목까지
3. 시험일시: '92. 3. 7(토) 09:00 - 11:50 * 과목별 고사시간 추후 확정 공고함('92. 3. 6(금) 14:00경)
4. 전형료: 과목당(W25,000)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2. 3. 2(월) - 3. 5(목) 4일간 나. 장소: 교무과
6. 합격자발표: '92. 3. 12(목) 예정

교무처장

추가등록 안내

1992학년도 제1기분 학부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납부기간: 1992년 3월 2일(월) ~ 3월 10일(화)까지
2. 납부처

구분	납부처	대상 학생
캠 퍼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으로 감액처리된 고지서 포함)
서 울 캠퍼스	조흥은행 동국대 출장소 및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① 장학금 수혜자로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
경 주 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3. 기타

- ① 등록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②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음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 ③ 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기 바랍니다.

1992년 3월

총무처장

"새 역사 창조하는 동국인으로"

입학식 갖고 장학증서등 수여 총학 교육재정 확보 선전전 벌여

서울캠퍼스 92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일 오전 11시 민병천 총장, 오인갑이사장등 학내의 내빈, 학부모, 신입생 및 재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광장에서 있었다.

이날 입학식은 서울캠퍼스 신입생 총 2천2백44명에 대한 입학허가선언과 신입생 선서, 총장식사, 이사장식사, 장학증서 수여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민병천 총장은 "입시준비에 전진공구하던 소에서 벗어나 이제 지식 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진에 힘쓰라"며 신입생을 격려했다.

이어 오인갑 이사장은 "경주별원 개원, 기초과학센터 건립등 계속적인 동국발전 청사진 제시를 통해 학내중흥 지원에 힘쓰라"고 밝혔다.

경주, 신입생 예비학교 1천여명 참가 단체·학과별 친목도모에 머물러

경주캠퍼스 92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신입생 예비학교'가 신입생-재학생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경주 도부탁빌드 방갈로촌 일대에서 열렸다.

예비대학준비위원회(위원장=전종근·총학생회장)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예년에 비해 단체·학과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며 전체행사가 교체 또는 연기되는 일이 찾아 내용성 담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행사지역과 내용성 부재로 아쉬움을 남긴 이번 예비대학은 단순한 과별 친목도모에 그쳐 학과소개와 학교생활 소개라는 차용의 취지가 희석된 결과를 빚었다.

전산과, 컴퓨터 공학과로 개칭 교직원 이수에 차질

공과대 '전자계산학과'가 이번 학기부터 '컴퓨터공학과'로 학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생들이 전자계산과목 교직원과정을 이수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범대 교과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84년부터 교직원과목 관련학과를 일괄정리함으로써 이번 학과명칭이 변경된 컴퓨터공학과는 교직원과목 관련학과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컴퓨터공학과 2·3·4학년은 현재 60여명이 교직원과정을 신청했지만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정수 교수 학술분상 수상

오정수(임학)교수는 지난 13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목재공학회 창립 20주년 정기총회'에서 연구성과 및 학회발전을 위한 공헌으로 학술분상을 수상했다.

한편 컴퓨터공학과 2·3·4학년은 현재 60여명이 교직원과정을 신청했지만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구한 전통에 자긍심 느껴

최근의 대학입시 관문을 통과한 이양은 "고3때 한의예과를 지망하고 싶었지만 중수가 모자라 타과에 응시했으나 소망하는 좌절을 겪어야 했어요"라며 겸손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남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면 고3때 흔히 말하는 '고3병'에 시달려 재수를 하게된 간절적인 이유가 된 것 같으며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

학과 충실 고시준비할 터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지난 1년간의 재수생활을 보살보는 기본으로 합격후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 김은성(경향행정학과)은 "이제 재수생으로서 학과공부에도 충실하면서 실력을 쌓아 고시준비를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 어떤 동지리가 좋냐며 동아리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는 김은은 전복 안양군이 고향이며 2년내중 장남이다. 불교종파대학인 본교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체육관 일부 개수 경기력향상에 도움 줄 듯

본교 체육관마루바닥(총7백44평)과 레슬링경기장(총80평)이 국제실내경기장과 대동한 자재와 공법에 의해 총공사비 1억3천7백50만원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면 교체된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매년 3월에 열리는 총장배 전국 고교생농구대회 유치와 체육특기자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약사랑' 발간

민주문화회(회장=신경림·영문·58층)에서는 회보 '동약사랑' 제28호를 지난달에 발간했다.

이 회보에서는 소련의 민족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민족의 개념 및 민족분류사,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옥성서신등을 비롯해 총선에 대한 대응방안, 각 부서의 사업계획등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담고 있다.

도서관 환경 개선책 절실 시설낙후 - 열람실 부족으로 이용자 줄어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관장=홍영백·사학)이 시설의 낙후와 열람공간의 부족으로 매년 이용자 수가 감소해 이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 이용자가 감소하는데 대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시설과 공간으로는 도서관운영의 적정한 향상은 불가능해 신속된 동국별관의 사용용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교수 19명 초빙 서울 3명·경주 16명

92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채용이 지난 24일의 1백44회 재단이사회 인사청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지난 1일자로 발령됐다.

이번 신규교수가 채용된 과는 총10개학과 19명으로 서울캠퍼스에는 인도철학과에 정승석 교수, 화학공학과에 이명천교수, 산업공학과에 이종태교수가 임명됐다.

근로장학생 지원 감소 1백20명중 40명만 계속 희망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던 근로장학생 지원자가 점점 감소추세를 보여 92년 신입생에게도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장학생은 총1백20명을 모집해 학교 행정사무실에 배치하고 장학혜택(기성회비면제)과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신입생에게 주는 글

총장 식사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권리와 자유의 상이점에서 학문과 인격의 연마는 물론 동국의 주체자로서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동국의 이상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총장 식사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권리와 자유의 상이점에서 학문과 인격의 연마는 물론 동국의 주체자로서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동국의 이상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식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식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장 인사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을 딛고 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놓은 동국대학교에서 크고 푸른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공약이 필요하신가요?

○...14대 총선에 대비한 '한지방 세기'의 표 표어인 '이것이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2천년대'에 건설하겠다는 '지하도로'건설이란 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되는가 하면 한층 더 때 놓인 비 수를 위한 비...
아라비트도 고르는 시대...고생은 싫고 돈은 좋으나

직원 및 재학생까지 덩달아 '물먹은 벼'가 되어 관해 팽창에는 스키가 소란한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는 서글픈(?)소식이 들려와...
 사실 용인과의 교가를 잘 못 알고 있는 재학생도 적지 않은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이번 기회에 신입생과 같이 교가를 배우는 것도 동국사랑의 첫걸음이 아닐까?"
고생은 가고 돈은 오려??

○...기러기도 최고 별로

위에.....누가 이 노래를 모르시나요?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던 지난 2일 정해진 식순을 마치고 앞으로 교가제창 순서가 있었는데, 새 신입생은 말할것도 없었지만 본교로

힘들지도 않으면서 짧은 기간에 돈 많이 버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을까요?

요즘 취업과에 부양업권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주요 선택사항은 편 하던 것도 돈은 많이 주 특성에 맞는 전사, 교육, 유

보물찾기 안할래요

○...해와관람을 앞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보물창고(?)가 있어 1만 동약인들의 호기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알아본즉 '본교 박물관'을 두고 하는 말로 불교박물관 설립에 맞는 전사, 교육, 유

정승석교수

·79년 본교 인도철학과 졸업
 ·91년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86~90년 전남대 강사

윤석성교수

·76년 본교 국문과 졸업
 ·91년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86~현재 본교 국문과 강사

임재걸교수

·74년 인천교육대 졸업
 ·90년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학위 취득
 ·91~현재 본교 전산과, 정보관리학과 강사

이명천교수

·83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91년 미국 Purdue대학 박사학위 취득
 ·91~현재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 화학공학과 Post Doctor

이종태교수

·81년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90년 미국 버클리대 박사학위 취득
 ·현재 버클리대 연구원

윤혜미 교수

·81년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90년 미국 Cornell University 박사학위 취득
 ·90~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영동교수

·82년 본교 통계학과 졸업
 ·91년 미국 NOVA대학 전산정보학 박사학위 취득
 ·91~현재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찬밥신세



◇'담힌 교본을 열며'는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았다는 이유로 독유실에서 쫓겨났다.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산꽃메'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그린 영화 '담힌 교본을 열며'의 촬영 및 편집을 완료하고 녹음하려는 과정에서 문화부의 압력으로 제작을 중지당했다. 이에 지금까지 영화담당사과와 앞으로의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우리의 문화부에겐 현실과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예술가들은 범죄예비자이다. 이 예술가들은 마치 마약사범이나 폭력조직처럼 항상 '제법'의 위엄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이 '건전한'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와 협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는 예술가들은 어떤 물리력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박멸'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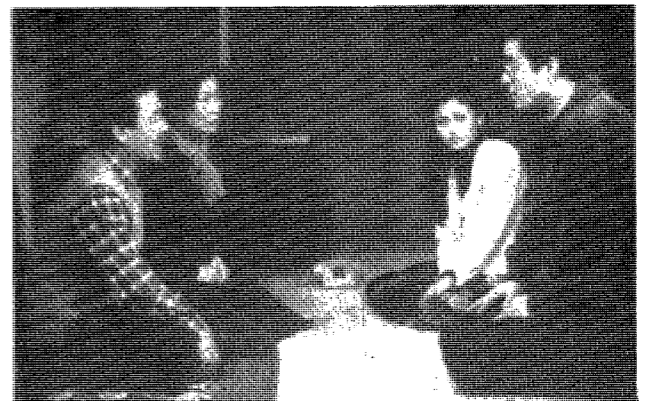
되어 있지만)의 투쟁을 삼엄한 계엄령 아래서 만든 이 영화는 탄압은 커녕 간노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의 6공화국은 그렇게 멸시한 '공산당 독재국가'보다 수준이 낮은가? 그렇게 우리는 고만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가혹한 교육 현실에 어떻게든 접근해 보려고 몸부림쳐본 우리의 내면적 영화 '담힌 교본을 열며'는 문화부의 숙적에 의해 아예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무리수를 두고서도 문화부는 자

임에서 계속 표류 중이므로 사법부에 의해서도 우리의 위엄은 아예 증명되지 않았다. 누가 법을 어기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짓밟고 있는가? 법을 법같이 보지 않고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을 법으로 간주하는 자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송두리째 갈아먹는 주인공들이 아닌가? 이제 이 땅의 가혹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분노를 느끼는 모든 양심적인 시민은 정말이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사람들은 범

억압받는 여성현실 얽은 재미로 포장

매체비평

'사랑이 뭐길래'



◇지배적 가치관에 의해 찌들대로 찌든 여성들의 이야기는 코메디가 아닌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신파조로 다루어져야 한다.

남성중심적 사고 자연스럽게 침투 충선출마한 주인공 이미지효과 노려

이와 같이 지배적 가치관에 의해 찌들대로 찌든 여성들의 이야기는 코메디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신파조로 다루어져야 제격일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는 웃음과 냉소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지독한 자학행위이며,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잔인한 가학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남성들은 물론이요 때로는 여성들까지도 이순재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보수주의를 은밀히 다져가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시장은 많은 이순재가 민자당의 공천을 받아 3월말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출마하는 이순재는 어디까지나 자연인 이순재요, 극중의 이시장은 다른 인물이나 헛지 썩을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강영희 (대학원 연영과 석사과정·영화평론가)

잠깐 생각해봅시다 ② 개강=휴강(?)

캠페스가 학생들의 힘찬 발걸음들로 환기에 넘쳐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전 갖 입학한 신입생들은 그야말로 싱그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각 과마다 신입생 환영회에 개강파티도 연이은 행사로 학교주변 술집은 북새통이 반편 강의실은 열렁하기만 하죠. 물론 활기 있고, 늘씬 놀아나 되겠지만 문제는 개강하는 한주일은 흔히들 '휴강하는 기간'이라는 공공연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처음이 좋아야 끝이 좋고, 시작이 반이란 말은 괜한 말 같진 않습니다. 개강한 후 여러 주(酒)파티에 쫓기고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 또 그러저러 보내다가 한 학기의 리듬과 계획이 자칫 엉망이 되버렸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단합과 친목의 경제적인 방법도 강구하면서 '강'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그전 바로 '우리의 웃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부)

또다시 빼앗긴 표현의 자유 허점투성이지만 반드시 상영할 터

못 맺었다. 이미 '위범을 두면'이나 저지른 불순한 단계'이므로 또 한편의 '불행'을 사전에 막겠다는 '베레'라 한다. 무엇이 위범인가? 우리는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노심조사하고 있다는 현정권에 묻는다. 헌법에 변형된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해박야 일단 이르므로 여기서 다시 꺼내지는 않겠다. '원저는 모르지만 명예 안드레' 예술 창작행위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영화법에 대해서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두면의 위범 행위, 아마도 80년의 '오/ 꿈의 나라'와 90년의 '파업전야'를 말하는 모양인데, 이 두 건 역시 각각 항소심과

폐위기

▲73년 3월 1일, 파괴 다공원에 모인 수천의 대중 앞에서 청년학생들의 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배포되고, 조선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여러곳에서 군중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개시했다. 3월1일에 폭발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파급돼 3월 중순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전국을 휩쓴 전민족적인 대투쟁으로 발전했다. 3·1운동 이후 급속히 성장한 조선독립운동은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져 1945년 해방을 맞이했다. ▲반 만년의 꺾음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보여준 3·1 독립운동은 반세기후의 민족해방투쟁의 꽃이었다. 또한 농민을 위시한 노동자, 학생, 중상인등 우리의 민족이 주체가 된 투쟁이었다. 허나 3·1운동의 서막에서 민족대표가 일제에 의해 33인의 결과자 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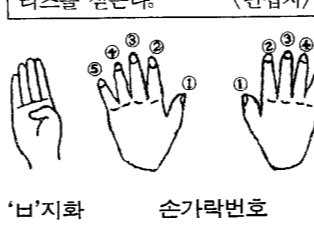
민중항쟁

이후 우리 민족은 4·19의 미완의 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을 거쳐 87년 6·10대투쟁을 이끌어 냈다. 6·10항쟁은 '4·13호헌 조치'로써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을 갈망하던 민족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 조작했던 당시 정권의 죄상이 폭로되자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 전국적인 민주화 항쟁의 폭발을 가져왔

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합성이 끊이지 않았던 6·10 민중항쟁은 6·29선언이라는 사기극에 의해, 투쟁을 중단했다. 6·29는 당시 민중의 분노가 대개의 비민주적인 제도에 집중돼 그 제도를 뜯어내려는 민중의 분노를 호도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해이다. 이른바 권력재편이라 일컬어지는 만큼 민족민주체력의 민주적부수임이나, 반민주 세력의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이나의 중대할 갈림길이다. 지난날 교훈에서 우리는 전민족적인 항쟁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웠다. 3·1운동, 6·10항쟁이 그러했기에 이번 권력재편기에서 전개될 치열한 한판 싸움도 전민족적인 투쟁이 동반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변화·발전하고, 이는 민중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浩)

수화를 배웁시다 ①

손짓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정으로 구경한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벽을 허물고자 이 시리즈를 심는다. (편집자)



'안'지화 손가락번호



안녕하세요? 양손을 펴서 약간 접혀다가 양쪽으로 벌리면서 주먹칩니다. 오랜만에 ① ②지를 붙인 양손을 마주 댄다가 떼다. 민사서 양손 ②지를 마주 보게 나란히 세웠다가 마주 댄다. 반갑습니다. '안'지화를 가슴 좌우에 위치한 후 번갈아 상하로 움직인다.



찰개구리 김태준 (9)

세계로 꿈을 퍼는 젊음 '새학기,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선발된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선 일본파견 —
우리집같은 분위기에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

동경에 발을 내딛기는 했으나 내가 아는 일본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많은 보고 들은 이웃의 나라였지만 내에게는 저 멀리 유럽이나 미주대륙에 있는 커다란 나라들 처럼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내에게는 일본을 보고 연구하고 마음껏 세계를 느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 자유로운 낯설음을 실재적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국민총생산 2위의 나라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 한 구석의 섬나라가 아님을 한눈으로도 알 수 있었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불리우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동경시 — 레저, 스포츠, 해외여행 등을 통해 삶 자체를 즐기려는 여유로운 — 4,700여종의 신문과 15,000여종의 잡지 —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일본은 짧은 시간안에 많은 것을 이루어놓았고 또한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스스로가 정보의 수신자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어 그 정보를 발신하는 정보의 발신자라는 자부심을 갖고있는 그들은 이제는 '일등국민'이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얼마전 홋카이도 여행을 통해 한 일본인을 만났다. 여덟명이 함께 쓴 선실에서 만나

밋밋을 같이 지낸 그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조용히 일어나 선실에서 함께 사용하는 컵을 씻어오곤 했다. 너무도 당연하게 컵을 씻는 그의 모습을 오히려 애석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가슴속에서는 지하철에서 수침을 꺼내 깨알같은 글씨로 하루를 계획하고 살 물건을 정리하던 한 일본 주부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겹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설레임만 가득한 이국의 낯선 방문자일 수는 없었다. 동경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나의 가슴이 마치 큰 세계를 향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들과 세계에 우뚝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삼성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사람의 국제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신파견지역전문가제도 —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경험과 지식만을 쌓이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이 제도에는 매년 400명씩의 3년차 신입사원이 선발되어 독신파견되고 있으며 3년후에는 약 2,000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된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이준수 (신선자적 전문인사) 유종의 체면... (Small text block at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